

조학균 신부의 미사 이야기

※ 주 : 평화신문에 연재된 조학균 신부님의 "미사 이야기"입니다.



조학균 베드로 신부
예수회, 전례학 박사

23 영성체 예식 - 공동체와 화해하고 예수님과 하나되기

감사기도가 끝나면 영성체 예식으로 들어간다. 영성체 예식은 1) 주님의 기도 권고 2) 주님의 기도 3) 평화 예식 4) 빵 조각과 하느님의 어린양 5) 영성체 초대 6) 영성체 7) 영성체 후 기도 등으로 나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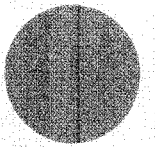
말씀 전례에서 선포를 통해 하느님 뜻이 우리에게 전달된다면, 성찬 전례는 눈으로 하느님 뜻을 확인하는 순간이며, 그리스도 몸이 우리 안으로 오셔서 우리와 하나를 이룰 수 있는 순간이다. 감사기도 예식에서 신앙의 눈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곁으로 오심을 보았다면, 영성체 예식에서 성체를 모심으로써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영성체 예식의 첫 번째 부분은 주님의 기도를 바치기 전에 사제의 초대 말로 시작된다.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 주님의 기도 권고). 이는 사제가 의미 없이 하는 말이 아니라 주님의 기도를 하는 이가 누구이며, 누가 이 기도를 가르쳐 주었는지 설명하면서(마태 6,9-13; 루카 11,2-4) 미사에 참여한 이들을 거룩한 순간에 초대하는 것이다.

그런 연유로 주님의 기도는 단순하게 외우는 기도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여야 한다. 주님의 기도 때 미사를 주례하는 사제나 공동 집전자들은 다 함께 팔을 벌려 회중과 함께 기도한다(미사 경본 총 지침 237항). 이때 사제가 팔을 벌리며 기도를 하는 자세(본 기도를 포함해서)는 나무를 연상하게 한다. 즉 나무와 같은 모습은 항상 하늘을 향하고 있다는 의미로서, 기도가 항상 하느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과 아울러 하느님의 은총을 받는 자세를 의미한다.

다른 나라 교회에서는 회중이 사제들과 같이 팔을 벌려 주님의 기도를 바치는 경우가 있지만 한국 교회에서는 팔을 벌려 기도를 하기보다 손을 합장한 채로 기도하기를 권장하고 있다. 주님의 기도는 다른 기도와 달리





끝에 '아멘'을 하지 않으며, 바로 응답 영광송(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으로 끝맺는다.

이어 평화 예식으로 이어지는데, 평화 예식에서 교회는 자신과 인류가족 전체의 평화와 일치를 간청하며, 신자들은 성체를 모시기 전에 교회에서 누리는 일치와 사랑을 드러낸다. 평화의 인사를 나누는 방법에 대해서는 주교회의가 민족의 문화와 관습에 따라 정한다. 한국 교회에서는 평화의 인사로 가벼운 절이나 가볍게 안음, 손을 맞잡는 동작을 할 수 있다(미사경본 총 지침 82항).

무엇보다도 빵을 나누기 전에 하는 평화 예식은 미사에 참여하는 회중이 평화스러운 마음과 기쁜 마음을 갖고, 공동체 구성원들과 화해함으로써 영성체를 통해 그리스도 몸이 내 몸 안에서 하나 됨을 느끼게 해준다. 영성체 전 공동체와 화해함으로써 온전히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는 준비를 하는 것은 중요하다.

미사 통상문에서는 평화의 인사를 장례미사 때는 생략할 수 있다고 했지만, 사목자 판단에 맡기라는 것이지 실제로 평화의 인사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에서 출판한 장례예식(시안)에서는 평화의 인사 때 교우들은 서로 목례나 합장, 악수 등으로 알맞게 인사를 나누며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미사는 살아있는 이들을 위한 전례여서 평화의 인사는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는 것이며, 망자가 분향으로 가는 것에 대한 그리움 및 아쉬움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24 빵 나눔 - 하나의 빵, 모두 한 몸을 이루다

미사에 참례한 이들은 평화의 인사를 나누며 조용하고 벅찬 기쁨이 충만한 상태에서 성체를 받아 모시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된다. 이때 사제는 축성된 빵을 들어 성반에서 쪼개어 그 작은 조각을 성작 안에 넣으며 조용히 기도하는데, 빵을 쪼개는 이유는 빵 나눔을 통해 공동체의 사랑과 일치를 다졌던 유다 풍습에서 유래한다. 사도시대에서는 사제단이 주교를 중

심으로 빵을 나눴는데, 빵 나눔을 통해 한 분이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몸을 이루는 것이라 생각했다. 이 예식은 하나인 생명의 빵, 곧 세상 구원을 위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리스도를 모시는 영성체에 참여하는 모든 이가 한 몸을 이룬다(1코린 10,17)는 사실을 드러낸다(미사경본 총 지침 83항). 빵을 나누는 행위는 단 한 번 미사 중에 이뤄진다. 성찬례가 시작되는 부분, 즉 “빵을 들어 축복하시고 쪼개어...” 하는 부분에서 빵을 나누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미사 통상문 의미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사제는 축성된 빵을 나눈 후, 작은 조각을 떼어 성작 안에 넣으며 기도한다. 이때 작은 성체 조각을 성작에 넣는 것은 신학적으로 큰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관습적으로 내려온 행위지만, 오늘날에는 구원의 업적에서 주님의 몸과 피의 일치, 곧 살아 계시고 영광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표시한다. 또 양형 성찬의 상징적 가치를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빵 나눔을 하는 동안에 회중은 '하느님의 어린양'의 기도문을 외우게 되는데, 이 기도는 7세기쯤 동방 교회 예식에서 도입했다. 성가대가 노래로 할 수도 있는데, 너무 길게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축성된 빵을 쪼개는 동안 반복해서 할 수 있지만 끝 절은 “...평화를 주소서”라는 기도로 끝낸다.

사제는 빵 나눔 후에 손을 모으고 영성체 전 기도를 바치는데 '가' 양식이나 '나' 양식 중 하나를 선택해 조용히 기도한다. 기도가 끝난 후 사제는 쪼개어진 성찬의 빵을 성반이나 성작 위에 들어 신자들에게 보이며 그리스도의 잔치에 참여하도록 초대한다. 축성된 빵 즉 성체를 들어 신자들에게 보이는 이유는 성체가 나누어져 있음을,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나누어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쪼개진 빵이 원래 상태로 되돌아갈 수 없음을 상징한다. 또 신자들에게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나눔이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아갈 수 없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자들에게 베푸신 당신 사랑을 거두지 않으신다는 의미를 갖는다.

그리고 성체를 거양할 경우, 성체 높이는 사제 눈 높이에 맞추는 것이 적당하다. 그 이유는 과거에 제단이 높지 않거나, 제2차 바티칸공의회 이전에 벽을 보면서 미사를 거행했고, 성체를 거양했을 때 신자들이 성체를 제대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제는 높이 들어 거양했지만, 오늘날에는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사제와 신자들은 감실에 모셔둔 성체보다 그 미사에서 축성된 성체를 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자들이 영하는 그리스도의 몸이 현재 거행되는 제사를 통해 지금 이 순간에(Hic et nunc)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이다. 너무 많이 성체를 축성해 감실에 보관하는 것보다 적당량의 성체를 감실에 보관하고, 미사에 참례하는 신자들에게는 매번 축성되는 성체를 영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5 영성체 - 굳은 신앙과 기쁜 마음으로

신자들은 영성체를 하기 전 신앙고백을 해야 한다. 사제가 성체를 들고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에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하고 외치면 신자들은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곧 나오리이다” 하고 고백한다.

이때 “하느님의 어린양”은 요한 세례자가 예수님께 붙인 칭호이며 동시에 묵시록(19,9)에 나오는 성경 말씀에 근거를 둔 고백이다. 그리고 신자들의 응답은 백부장의 고백(마태 8,8)에 근거해 겸손한 자세와 확고한 믿음에서 나오는 고백이다.

미사에서 신자들의 고백 목소리는 중요하지만 성체를 모시기 전에 하는 고백은 신자들이 평화스러움

과 함께 벽찬 기쁜 마음으로 자신의 굳은 신앙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영성체 하는 모든 신자들은 성체를 영하기 전에 바로 옆 형제자매와 평화를 나누는 것을 기억하면서 기쁜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갖고 영성체 행렬에 참가하는 신자들은 선택된 자신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면서 더불어 경건하게 제단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

영성체는 사제가 먼저 성체와 성혈을 영하고(이때 주례사제가 큰 성체의 일부분을 성합에 넣어 미사에 참여한 신자에게 주는 것은 사목적으로 좋은 배려라고 할 수 있으며, 성혈은 일반적으로 사제만 마신다), 특별하게 허용된 경우(미사 거행에서 자기 임무를 수행하는 부제와 다른 사람들, 수도원 미사 또는 ‘공동체’ 미사를 드리는 공동체 회원들, 신학생들, 영성 수련, 피정, 영성 모임 등 사목 모임에 참석하는 이들의 경우 - 미사경본 총 지침 283항)에는 양형 영성체도 매우 바람직하다.

성체를 줄 때 사제는 성체를 영할 신자에게 들어 보이며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신자들은 “아멘”이라는 동의를 표한다. 이때 “아멘”은 자신에게 보여지는 밀떡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고백하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모든 이들이 성체와 성혈을 먹고 마셔야 진정한 영성체에 참여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성체만으로도 그리스도와 완전한 일치를 이룰 수 있다고 교회는 가르치고 있다. 그리고 교회간의 일치, 혹은 하나의 공동체 구성원이라는 생각으로 아직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혹은 개신교 신자들)에게 성체를 나눠 주는 경우가 있는데, 결코 나눠 주어서는 안 된다.

성체를 영하는 신자들은 손으로 영하거나(왼손으로 받고 오른손으로 집어 영한다) 입으로 직접 성체를 영하는데, 한국 교회에서는 손으로 성체를 받아 모시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때 신자들은 사제가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쉽게 받기 위해 사제가 성체를 주는 높이에 맞춰 손을 내민다. 너무 높게 혹은 낮게 손을

내밀 때 그리고 손을 너무 가슴 쪽으로 가 있으면 사제들이 성체를 분배하는 데 힘들기 때문이다.

또 성체 분배를 도와주는 평신도들은 교회에서 주관하는 과정을 이수함으로써 주례 사제를 도와 성체를 분배할 수 있다. 단 성체분배 때 성체가 부족하다고 여겨 성체를 쪼개는 행위는 허락되지 않는다. 성체를 쪼개는 것은 사제(때론 부제)에게 부여된 고유한 권한이기 때문이다.

26 성작 - 하느님 나라와 인간 세상 잇는 연결고리

영성체가 끝나면 사제는 성합에 남아 있는 성체를 감실에 보관한다. 그리고 성혈이 담겼던 성작을 복사 도움을 받아 씻는다. 먼저 복사가 준비해 둔 물을 가지고 오면 성작 안을 확인한 다음 물로 성작 안을 닦는다. 사제가 성작을 물로 씻는 예식 때 또 포도주를 부어 다시 마시는 줄 아는 신자들도 일부 있지만, 성작 안에 남아 있을 성혈을 물로 깨끗이 씻어 내는 예식이다. 그 이유는 한 방울의 성혈이라도 소홀히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성찬례를 거행하는데 있어서 눈에 띄는 것이 성작인데, 성작에 대한 신학적 지식은 다음과 같다.

미사 전례가 거행되는 제대가 두 부분(제대 윗부분과 윗부분을 지탱하는 버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듯이, 성작은 컵(cup), 마디(bond), 다리(foot) 세 부분으로 이뤄져 있다. 각각의 부분은 서로 다른 의미와 용도를 갖고 있다. 성작에서 컵(cup)의 중요한 사용 용도는 포도주를 담는 것이고, 마디는 컵과 다리를 연결하는 부분이고, 다리는 성작의 중심을 잡고 서 있게 하는 것이다.

과거 제2차 바티칸공의회 이전 라틴 전례에서, 성작의 마디는 성체 축성을 한 후에 손가락을 펼 수 없는 이유로 인해 성작을 잡는데 용이하게 사용하기 위해 원형 모양으로 제작됐다. 그래서 미사를 집전하면서 하느님과 신자들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사제

는, 하늘나라의 성(聖)스런 부분과 세상의 속(俗)을 연결해 주는 성작의 마디를 잡고 성찬례를 거행했다. 즉 성작에서 컵은 성스러운 곳, 즉 하느님 왕국으로 설명됐고, 다리는 인간 세상을 표현하는 의미를 지니며, 마디는 인간 세상과 하느님 세상을 잇는 연결 고리로 이해됐다.

하느님 구원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들에게 다가온 것과 같이 성찬례가 거행되는 이 순간에도 사제는 하느님 은총과 세상의 구원을 연결하는 마디를 잡고서 하느님 왕국과 인간 세상을 연결시키면서 다시 한 번 하느님 은총이 세상에 도래하기를 기원하며 기도를 한다. 그러기에 사제는 성찬례를 거행할 때는 성작의 마디를 잡고 전심을 다해 기도를 하는 것이다. 일부 사제가 가볍게 생각해 성작의 컵 부분을 잡고 거양을 하는 것은 신학적 의미에 어긋나는 행동이다.

또 오늘날에는 편리성과 실제적 그리고 예술적이라는 이름 아래 단순하고, 유행 감각을 갖춘 모양의 성작을 많이 볼 수 있다. 이러한 새로운 현대의 성작에 대해서는 새로운 개념을 갖게 된다. 그렇다고 성작이 갖는 신학적 의미가 변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성작에서 컵은 단순하게 어떠한 유동적 물질을 담아 두는 것이 아니다. 컵에는 하느님의 총명한 은총이 담긴다. 이 은총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전달돼 삶을 풍요롭게 만든다. 또 이 은총으로 말미암아 신자들은 하느님 자녀로서 양육돼 영원한 하느님의 신비에 참여하도록 초대되는 것이다.

하지만 무리한 예술적 가치를 지닌 성물(성작 혹은 십자가, 14처 등)은 시간이 지나면 해석을 할 수 없는, 이해 곤란한 추상적인 교회 소장품으로 전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 다음호에 계속

